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농작물 피해도 포함해야”

## 나주시, 전남도에 건의서 제출키로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남도에 제출키로 했다.

나주시는 5일 “배와 버, 원예작물의 피해가 극심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매뉴얼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지연되면서 농업인들의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현행 특별재난

지역 선포기준을 공공과 사유시설물 뿐만 아니라 농작물까지 포함시켜서 국가차원의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릴레이 태풍’으로 인해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나주시의 피해내역은 공공시설물 81억원, 농작물을 제외한 사유시설물 106억원으로 모두 187억원이다. 배 낙과 피해가 800억원에 달하고 시설하우스 700동과 인삼 등 특용작물 70여ha 파고, 축사 47동 폐사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초기에 농작물 피해까지 반영해서 특별재난지역 선정

이 이뤄졌더라면 지연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수와 수도작, 시설원에 등 작물피해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에그플레이션’현상을 초래하므로 이와 관련한 특별재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70%·80%·85% 등 3단계로 분류된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유형을 90%와 95% 등 5단계로 다양화해줄 것과 국비지원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또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가지원 기준도 현행 재난지수 300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하향조정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줄 것과 ▲수도작(백수현상) 태풍피해 조사기간 연장 ▲시설하우스 반파 등 피해지원 제도 개선 ▲낙과배 전량 수매 등도 건의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3~4일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고흥·영암·완도·진도 등 9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해당 시·군·구는 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한결 덜게 된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on@



## 장성, 책향기에 물들다

장성군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 제공을 위해 군청 현관에 작은 도서관인 ‘열린 서재’를 지난 3일 설치했다. ‘열린 서재’는 800여권의 최신 신간 도서와 신문, 인력의자 등을 갖췄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 제공을 위해 군청 현관에 작은 도서관인 ‘열린 서재’를 지난 3일 설치했다. ‘열린 서재’는 800여권의 최신 신간 도서와 신문, 인력의자 등을 갖췄다. <장성군 제공>

## 장성 축령산서 신나는 라이딩 즐겨요 16일 MTB 전국대회

MTB 코스로 동호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장성군 축령산에서 전국규모의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린다.

장성군 체육회는 오는 16일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부산 등지에서 900여명의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축령산 산소길 MTB 전국대회’ 및 초청 캠프투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MTB 전국대회와 더불어 투어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 많은 참가자들이

축령산에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캘린저 전국대회는 모암 축제장을 출발해 통나무집→우물터→임종국 선성 기념비→금곡영화마을→우물터→임종국 선성 기념비→대덕 휴양관→모암 축제장으로 되돌아오는 총 30km 구간에서 진행된다.

투어링 코스는 모암 축제장→통나무집→우물터→임종국 선성 기념비→대덕 휴양관→모암축제장

으로 15km를 투어하게 된다. 종료 후 참가자들은 금곡 영화마을과 관백숲 체험 관광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난 대회에서 동호인들이 높은 호응을 보여 올해 MTB 전국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대회가 축령산 둘레길에 이어 관광장성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yongho@

## 14~16일 ‘대숲 맑은 한우 축제’

담양군과 담양축협 브랜드사업단은 오는 14~16일 사흘간 담양 종합체육관 광장에서 ‘대숲 맑은 한우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청죽(靑竹) 향기 가득 담은 대숲 맑은 담양 한우’를 주제로 한우 품평회, 퀴즈왕 선발대회, 관광객 오천인 시

사회 등으로 진행된다. 담양한우 직판장과 셀프식당을 운영하고 경매도 실시해 판매에 힘쓰는 한우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한편 ‘대숲 맑은 담양한우’는 지난 7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159호) 등록됐다. /중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gg@

# 나주 낙과 배 선별 400t 상품화

## 시·농협 작업 돌입... 기업·공공기관·단체 주문 폭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나주시의 과수농가의 낙과배 사주기 운동이 전개된 가운데 나주시와 농협이 낙과 선별작업에 돌입했다.

나주 APC(산지거점 유통센터)는 농가들로부터 입고한 배를 5일 오전부터 라인을 완전 가동해서 선별에 들어갔다.

시는 “낙과배 주문이 기업과 나주 출신 향우들의 대량주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단체에서도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현재 낙과배 주문물량은 감사원 1700상자, 두산 큐백스와 두산 캐피탈 875상자, 공군 제1전투비행단 705상자, 서울 상인연합회 500박스, LG화학 나주공장 100상자 등 모두

891건에 8300상자(5kg)에 달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태풍으로 배 재배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듣고 어려움을 나누자는 마음에서 낙과 배를 구매하게 됐다”며 “그릇차원에서 이뤄진 작은 도움이 농민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낙과된 배 가운데 1300t

을 선과해서, 이 가운데 10브릭스 이상의 당도와 품질에 대한 엄격한 선별을 통해 400t 정도를 상품화할 계획이다. 1상자당 600g짜리 배 8개 내외를 포장해서 1만원(택배비 포함)에 판매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낙과된 시점이 충분히 익은 상태가 아니라 맛이 들기 전에 떨어진 것이라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골라 판매한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미흡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배 과수농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낙과 배를 판매한다는 취지를 살려서 농민들의 맘을 생각하며 구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on@

# 전 북

## 남원 관광명소 ‘자전거 투어’

### 역 광장 주차장 설치 160대 비치

앞으로 열차를 이용해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게 됐다.

남원시는 남원역 광장에 지주식 자전거주차장을 완공하고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94㎡에 조성된 자주식(自駐式) 자전거주차장은 160대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2단으로 나눠 설치했다.

남원시는 관광객을 위한 투어용 자전거 50대(남성용 35·여성용 15대)를 구입해 남원역에 전달했다.

자전거는 열차를 이용해 남원

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대여한다.

투어용 자전거는 1만2000원의 보관금을 받고 대여한후 반환시 1만원을 환불해준다. 나머지 2000원은 수리비로 활용한다.

친환경 자전거주차장 조성은 남원시와 남원역이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수차례 건의해 사업비 4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완공했다.

이환주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건립으로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 증진은 물론 친환경 녹색성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과수농가 ‘겉시름’

## 태풍 낙과 피해 이어 갈색날개매미충 확산

### 여름 기름·고온현상 원인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타격을 받은 전북 도내 과수농가가 이번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의 확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5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처음 발생한 ‘갈색날개매미충’이 전주와 완주의 경계인 모악산을 중심으로 순창·김제·남원·진안·임실 등 인근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주로 수확이 끝난 복숭아·매실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갈색날개매미충’의 확산 원인은 지난 여름의 기온이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인해 크게 증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된다. 지난 7월부터 산림에서 성충으로 변한 매미충이 알을 낳기 위해 인근 복숭아나 매실나무 등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나무의 줄기에 흡을 하고 알을 산란하고서 회색의 왁스 같은 물질로 난포(알덩이)를 밀봉하고 있어 방제가 쉽지 않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포충망을 이용해 줄기에 붙어 있는 성충을 제거하고, 꽃매미 적용약제를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근 야산의 잡목 등에서 서식하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고창서 생생갯벌 체험축제

고창군 하진 여천계는 오는 8~9일 삼원면 하진마을에서 ‘생생갯벌 체험 축제’를 연다.

주최 측은 갯벌에서 조개 캐기, 트랙터 버스 타기, 풍천장이 맨손 잡기, 망둥이 낚시, 갯벌스포츠 등의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갯벌 생태자원 사진전, 전통어구를 전시회, 바지락 갈국수 만들기, 바지락전 부치기, 진흙 목걸이 만들기 등 준비했다. 참가비는 어른 5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점심 물고기와 조개 1.5kg까지 가져갈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 신

#### 전주 인재육성재단 장학생 모집

(재)전주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윤여용)은 2012학년도 2학기 전주시역 우수인재 장학생을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대학생 50명(도내 30·도외 20명)이며, 장학금액은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전주시청 민원실 맞은편 전주

빌딩(평화관광) (재)전주 인재재단 사무국 (063-281-5082). 지원자격은 전주시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주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며, 성적기준은 올 1학기 성적이 B+ 이상 이어야 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남원시, 기초수급자 152가구 구제

남원시는 4일 탈락위기에 놓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2가구를 적극적으로 구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탈락위기에 놓인 152가구에 대해 수급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리구제를 받은 대상은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가구로 부양의무자와 장기간 단절되었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 경우다. 남원시 방범대 담당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를 선정하다 보니 억울하게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정읍 ‘감곡면민의 날 축제’ 성료

정읍시 감곡면은 최근 ‘제7회 감곡면민의 날 감곡축제’를 민민과 출향인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감곡농악단의 흥겨운 농악놀이를 시작으로 감곡면 생활개선회의 퓨전난타 공연, 다문화음식 맛보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감곡면체육회 진명신 회장은 “태풍으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많았으나 민민 모두가 동참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감곡면의 새로운 희망과 화합을 다지는 취지로 행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북분자 호떡·쿠기 개발 보고회

(재)고창 북분자연구소는 최근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연구개발 과제로 북분자를 활용한 호떡·쿠기 등 체험용 프리미엄개발 사업에 대한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최근 웰빙 먹거리

선호 및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관광이 증가되는 현실에 알맞게 북분자 가공기술과 체험관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재해지역 학생들 장학금 받고 힘 내세요

### 전북대 21일까지 접수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는 최근 폭우에 이은 ‘릴레이 태풍’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재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피해 규모에 따라 등 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어서 피해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 장학금 신청대상은 재해 피해자 또는 자녀로 올 2학기 학부 재학생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학본

부 학생과(063-270-4141, 2162)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시·군·읍·면 사무소가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서거석 총장은 “특별 장학금을 지급을 통해 재해지역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쓰러진 벼 세우기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운)은 지난 3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도복 피해를 입은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에서 벼 세우기 일손돕기를 벌였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